

CSL Mission 소식

His Story

(CSL 소식지는 연 3회 발간됩니다.)

1. 이 선교사 이야기

주님이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몇 가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주님과 동행할 때는 항상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큰 사건도 있고,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작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행하는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매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신 흔적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난번 소식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라고들 말하는 ‘이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중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슬리퍼... CSL아카데미의 오픈을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중에, 슬리퍼를 넣어둘 신발장을 들여놓고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슬리퍼가 몇 개 안 되다 보니 빈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리퍼를 더 채워 넣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쯤에, 커다란 투명 비닐 봉지에 약 20개 정도의 슬리퍼가 들어있는 사진과 함께 라인(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슬리퍼 필요하신가요?”

회사에서 잔업을 하고 퇴근하던 한 성도가 회사 현관 앞에 버려진 깨끗한(행사를 위해서 한 번 사용한 것 같음) 슬리퍼를 보고는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화... 지난 4월에 만났던 강명희 씨(일본에 세워진 북한 학교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온, 처음 만났을 때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했음)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었습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문제인 것 같았으나 연락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업무를 보고 다시 연락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강명희 씨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두 손을 모으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나 싶어 받지 말까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희 씨 친구인 야마시타입니다. 강명희 씨가 당신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도 되겠습니까?”

야마시타 상은 지난번 만남 때 혹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전화번호를 받아 갔었던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께서 일하셨습니다.

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쌀을 씻어 놓고 나가려고 보니 쌀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녁에 돌아올 때는 잊지 않고 가게에 들러서 쌀을 사 와야겠어요!”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CSL아카데미에 도착해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협력 교회의 사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책장 옆에 챙겨 놓은 쌀을 꼭 가져 가세요. 어제 쌀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좀 챙겨 놓았답니다.”

주님은, 제가 쌀통을 들여다보기 전부터 이미 쌀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날씨... 한국어 프리토킹 수업을 받고 있는 넌크리스천 일본인 두 사람(요코, 아쯔코)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내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카마쿠라(수국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나들이를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강경하게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사실, 그 주 내내 장마로 인해 비가 오고 있었고 다음 날인 내일도 계속 장마 전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좀 친하거든요. 제가 잘 말씀드려 볼 게요.”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웃으면서 헤어졌고, 저는 그날 밤에 “아버지, 요코 씨와 아즈코 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짹짹 비취는 최상의 날씨로 수국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가 지난 뒤 요코 씨와 아즈코 씨는 저를 만나자마자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기장판... 이곳은 바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실은 넓기 때문에 대형 전기장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사 오는 성도에게, 배편으로 이사짐을 보낼 때 대형 전기장판 하나만 좀 싣고 와 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된 손님이 집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커서 겨울에는 정말 춥겠네요. 혹시 대형 전기장판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집 창고에서 꺼내지도 않은 전기장판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바로 택배로 보낼게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매식장아찌... 한 자매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제가 “일본에서 먹는 물렁물렁한 매실 말고, 아삭아삭한 한국의 매식장아찌가 먹고 싶네.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10년이 넘게 못 먹은 것 같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비행기로 시동생 가족이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시동생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것 저것 꺼내고 있으니,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조심스럽게 작은 반찬통을 하나 꺼내시며 말했습니다. “매식장아찌를 좀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좋아하실까 모르겠으나...”

세밀하게 챙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도 이런 일들이 매일 생기니, 우리집에서 한 달 반 정도 묵어간 청년이 “이제는 이런 일들이 신기하지도 않네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항상 흔적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흔적은 결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있는데, 저의 소소한 일상이 아버지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일상에서 ‘His Story’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2. CSL선교회 이야기

- CSL선교회 사역 중의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일본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CSL아카데미의 시스템을 전수하고 교회 내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등, 교회에서 장기적인 선교 사역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교회는 초기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오픈한 동경성산교회 CSL한국어교실을 위해, 한국에서 벽지를 가져와서 벽면을 도배하고 화장실도 다시 꾸며주며 바닥과 창문도 깨끗하게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몇몇의 성도들을 담당자로 세워서 강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훈련시켰습니다. 9월부터는 성도들 중심으로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CSL아카데미에서 키즈영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아(0~3세)반을 오픈하여 엄마와 아이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엄마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합니다. 수업 후에 바로 돌아가지 않는 엄마들은 CSL무료카페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스태프들(자원봉사자들과 강사들)과 수다를 떨습니다. 유치(4세~6세)반 엄마들도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무료카페를 이용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 CSL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일본은 1000명 중에 4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실정하기에 기독교 출판사도 거의 없고 신앙서적을 사서 보는 크리스천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고전들을 중심으로 소책자를 번역하여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넌크리스천에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전철역 개찰구(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기에, 전철에서 문고판 소책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에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안정돼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본국제선교신문]에 CSL선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일본 선교 전략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더욱 협력하여 일본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통로인 한국어교실'

Christ School of Language 아카데미로



이정민 선교사
· 문과대학(한국어문과 전공)
· 신학석사(MACD) 과정

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는 총 다섯 가지의 선교 전략(말씀통독, 하나님에 대한 관심, 기도동역자, 크리스천 친구들, 차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전략은 한국어뿐 아니라 어떠한 언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이 선교사는 CSL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난 4년간 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이제는 이 전략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에 나누고자 동역자들과 함께 2018년 1월 첫째 주일에 CSL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발족하였다.

탐을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등록시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함께 동역하는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4) CSL아카데미의 수익금 전액으로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인 신학생들을 후원한다.

CSL선교회는 직접 CSL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어교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회에 인력(자리적 한계 고려) 및 교재, 수업자료, 홍보자료 등을 보내서 돕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영어교실을 오픈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어학을 비롯한 각종 배움의 타전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CSL선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역자(교회 또는 개인)나,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다.



이정민 선교사(여장 백색)는 2014년에 일본의 한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일본인들과 접촉해 오면서 이것이 단지 접촉점의 역할

로만 그치지 않도록 선교 전략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CSL(Christ School of Language: 언어

CSL선교회는 다음의 4가지 사역을 주로 한다.

- 1) CSL아카데미(CSL선교전략)를 사용한 한국어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 2)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

- CSL아카데미 학생들과 일본인 친구들을 초대하여 'Korean Day'라는 이름으로 추석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날은 넌크리스천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복음의 기회를 얻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소개하면서 송편을 직접 만들어 그 자리에서 찌서 먹고, 대형 윷가락을 던지며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갈 때는 한 사람씩 선물을 들려서 보냈는데, 선물 가방 안에 소책자(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로 각색한 책) 한 권과 한국의 김자반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이 모두 이 책을 읽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날 초청된 넌크리스천은 모두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분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이나 더 일찍 와서 스태프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12월에 있을 크리스마스 행사도 기대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3. 복음 이야기

- 오랜만에 아프코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차를 마시면서 거의 5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참된 신’에 대한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프코 씨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놓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만 진짜 신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편견없이 진정한 신에 대한 갈망으로 간절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신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찾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냐며,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찾고 또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 보라고 말입니다.

아프코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프코 씨는 진리에 관심이 많아서 간간히 성경책(3년 전에 성경책을 선물했었고, 지난번에는 큰 글 성경책으로 바꿔주었습니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만다 그 마음에 영적인 부대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딱딱한 이성으로만 살아오다 보니 영적인 감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프코 씨가 말씀의 능력을 속히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요코 씨와 이사오 씨(요코 씨의 남편)를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해도 되냐고 묻고는, 소리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사오 씨는 이런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다면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더 밝아졌고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사오 씨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코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이사오 씨는 영어 프리토킹 수업(한국어 수다수첩을 사용하여 매주 한 가지씩의 테마로 이야기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사오 씨는 이 수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수업을 두어 번 했을 즈음, 튜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입니다.”

이들 부부는 참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신도 믿지 않습니다만, 가치관이 건강하고 순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곧 이들의 관심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차게 되길 기대합니다.

- 타카하시 상은 지난 여름 내내 자신의 별장에 우리를 여러 번 초대하고 싶어했습니다. 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고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할 수없이 다음 여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타카하시 상이 갑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 되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무래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즉시 기도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타카하시 상의 딸이 조만간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타카하시 상과 그 딸이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호리카와 상(박목사님이 아시는 일본인 할머니)에게는 치에라고 하는 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데다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상도 과도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성향(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 성향)으로는 치에를 돌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에의 어머니는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심한 우울증도 앓고 있어서, 치에의 어머니는 치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치에의 동생(사키 썩)만 감쌉니다. 치에의 아버지는 이를 방관한 지 오래되었고, 독방을 사용하며 혼자서 지냅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치에는 그 상처가 깊어서 더욱더 과도한 행동을 하고, 어머니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치에의 어머니에게 섬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치에를 우리집으로 데리고 와서 3일간 떨어져 지내게 했습니다. 치에는 소희(우리집 막내딸)랑 함께 지내면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소희는 사랑을 많이 받네, 우리 엄마는 사키만 사랑하는데... 소희는 야단을 안 맞는구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에도 사랑받고 있는 아이라고 얘기해 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소희와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후리카와 상도 주일 어른 예배에 참

석한 후에 치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를 이런 식으로 두어 번 보냈습니다. 후리카와 상이 토요일에 치에를 우리집(전철을 타고 멀리 와야 되는 거리)에 데려다 놓고 갔다가, 다음 날 예배를 같이(치에는 어린이 예배, 후리카와 상은 어른 예배에 참석) 드리고는 치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에의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말을 후리카와 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목사님이 후리카와 상과 치에의 가족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치에의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치에와 그 가족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온가족이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잘 자라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추석 행사에 참석했던 나오코(20대)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오코는 이전에도 몇 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의 예배 참석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코의 현재 상황이 매우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라 그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번 추석 행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왈칵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나오코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코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코를 위한 주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현재 나누고 있는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는 기도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나오코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코는 요즘 전직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취직되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4. 운영 이야기

- CSL선교회가 돕는 첫번째 교회인 성산교회의 한국어교실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성산교회 한국어교실을 오픈하면서 성도 중에서 담당 선생님을 세웠었는데, 처음에는 무리하게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적 마인드로 무장되었고,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더욱 탄탄한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선교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한국어교실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추석 행사로 진행되었던 'Korean Day'에서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하던 교회가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한국어교실의 운영 전반을 교회에 맡기려고 합니다. CSL의 역할은 교회에서의 선교사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인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 CSL아카데미를 오픈하고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9월부터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두 배로 늘었고, 키즈영어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키즈영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키즈영어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를 주님께 여쭙었는데, 즉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평일날만 섬기던 일본 교회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교회 사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키즈영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과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적 지식만 있던 저에게 경영 지식이 풍부한 분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 사역이 복음의 통로로서 유용한 선교 전략이 되길 기도합니다.

- CSL아카데미의 학습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전혀 미리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방향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한국어만으로 시작된 것이, 주님이 영어 전문가를 보내 주시면서 키즈영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쯤에 또 주님이 음악 전문가를 보내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함께 동역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를 계기로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SL의 명칭을 [Christ School of Language]에서 [Christ School of Learning]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스포츠 전문가도 보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는 제가 불러오지 않았고,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 주님을 쫓아갑니다.

- 얼마 전부터 CSL선교센터와 예배 처소로 사용될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있어, 그 뜻에 따라 찾고 있습니다. CSL선교회의 많은 부분이 세팅 되었고,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선교센터(아카데미 포함)로 사용될 본사 건물이 필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CSL스태프와 성도들이 늘어서 예배 공간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좋은 장소가 속히 구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구입할 재정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을 믿으며, 2월의 기적(지난 소식지에서 나누었던 '이사 이야기' 참고)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SL과 동역하는 방법 안내>

* 기도 동역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및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더 요구되는 것이 기도 동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CSL아카데미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4대 사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CSL선교회의 4대 사역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SL선교회의 4대 주요 사역>

1. 선교전략으로서 CSL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을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등록시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함께 동역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4. CSL아카데미의 수익금 전액으로 일본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인 신학생들을 후원합니다.

* 재정 동역

약정금은 CSL아카데미의 운영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정 동역자들은 CSL아카데미의 운영자들입니다. 이 약정금은 CSL아카데미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장소 사용, 기자재 및 자료 구입, 홍보 관리, 홍보 등), 강사 및 간사들의 인건비, CSL출판 서적의 인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L아카데미와 출판사의 수익금은 전액 일본 선교와 현지 교회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 없이 성도들만 모여있는 무목 교회에 목사를 보내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이 일본땅이 속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1천엔(1만원) 약정금으로 동역하기 - 약정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약정금은 해당 은행에 가셔서 매월 25일로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동역자 정보 입력하기](#)

<일본>

ゆうちょ銀行, リジョンミン

【記号】 10540

【店名】 ○五八 (ゼロゴハチ)

【店番】 058

【預金種目】 普通預金

【口座番号】 8169644

<한국>

우리은행, 이인규

1002-158-235527

* 재능 동역

현재, CSL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이사, 원장, 강사, 총무간사, 회계간사, 서기간사, 출판간사, 디자인간사, 홈페이지관리간사, 홍보간사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재능을 기부하여 함께 동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출근하는 경우라 해도 상주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CSL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연락: www.cslmission.com

이메일 연락 : cslmission2018@gmail.com

휴대폰 연락 : +81 (0)80 8834 9067

* 시간 동역

CSL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넉크리스천들을 1:1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모델을 보여 주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수강하는 학생이 오면 즉시 1:1로 매칭이 됩니다. 주 1회 1시간씩만 시간을 내어 주면 되고, 한 명의 수강생과 10회만 만나면 됩니다. 만남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10회 후에 한동안 휴가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만남 시간을 보내는 동안의 역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준비와 내용은 선교회에서 제공하며, 주어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1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정보 입력하기](#)

* 다음 장에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프린트하시거나 사진을 찍은 후, 들고 다니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SL Mission 기도 제목

1. 복음을 위하여

- 성경통독을 통해서 아쓰코 상의 영과 혼과 골수가 쫓개지길
- 요코 상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도록
- 타카하시 상의 딸이 아기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 나오코의 전직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사용되길
- 추석 행사에 참석한 13명의 년크리스천들이 복음 책자를 진지하게 읽게 되길
- 새로 등록한 년크리스천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도록

2. 사역을 위하여

- 신앙서적 번역 작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키즈영어 오픈 설명회(10/20)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 CSL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려지도록
- CSL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나 현지 교회를 알려주시도록
- CSL선교센터와 예배 처소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3. 동역자들을 위하여

- 스태프들의 건강과 시간관리를 위해, 그리고 스태프 충원을 위해서
-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들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 재정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약정금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